

제주사회복지신문

>2017년 11월 1일 <월간>

www.jejubokji.net

>전화 : (064)702-3783-4 / 팩스 : (064)702-3383 제121호

사회복지 최고 자원봉사자를 찾습니다

도사회복지협의회, 오는 25일까지... '명예의 전당' 등재

제주지역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한 자원봉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명예를 드높이는 사회복지자원봉사 명예의 전당에 오를 새 얼굴을 찾는다.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는 '제8회 사회복지자원봉사 명예의전당'(이하 명예의 전당) 대상자를 오는 25일까지 추천 받고 있다.

명예의 전당은 제주지역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는 등 귀감이 되는 자원봉사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도사회복지협의회는 등재 대상자를 추천받은 뒤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중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추천은 도내 '사회복지자원

봉사 인증관리센터'(VMS)를 통해 추천서, 공적요약서, 현지 확인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를 첨부해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메일(jejubokji@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추천 기준은 봉사실적의 현신성, 수공기간, 전문성, 창의성, 확산성을 고려하여 △자원봉사 활동기간이 20년 이상인 자 또는 단체 △인증관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 만 7년 이상 활동 중인 자 △인증관리 데이터베이스에 봉사시간이 1000시간 이상인 자 △인증관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가운데 모범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던 중 상해를 입은 자 등 한 가지 이상의 항목이라도 해당될 경우 추천이 가능하다.

명예의 전당 등재자로 선정되면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 자리에서 등재기념 순금뱃지 시상과 등재기념패가 전달된다.

또한 공적 및 활동사항이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명예의 전당' 게시판과 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 '명예의 전당'코너에 등재 된다.

'명예의 전당' 추천 관련 문의 사항은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자원관리팀(064-726-5786, 팀장 홍나나)으로 하면 된다.

- 역대 '명예의 전당' 명단.
김영순(1회), 원석철(2회), 변명호(3회), 한경찬(5회), 정정숙(6회), 고명대(7회)
☞ 제4회 등재자는 없음.



제38회 만덕제 봉행식 진행 ▲ 베품과 나눔정신을 기리기 위한 제38회 만덕제가 열린 가운데 김만덕상 봉사부분 수상자로 선정된 강난파(76, 왼쪽 가운데)씨와 경제부분 수상자 강옥선(58, 오른쪽 가운데)씨가 봉행식에 참가하고 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될 듯

복지부, 민관협의체 구성 1차 회의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종합판정체계' 도입 등 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 정책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계, 전문가, 정부가 함께 장애등급제 폐지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달 20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8월25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광화문 농성장의 장애인단체를 방문해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 등급은 장애상태와 정도 등 의학적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1-6등급)을 인정받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서비스가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제공돼 개인의 서비스 필요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장애인에게 등급을 부여해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을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민관협의체는 장애등급을 대신하는 종합판정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서비스별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지원기준과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을기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서비스 기준, 전달체계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 장애인정책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큰 정책과제"라며 "장애인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장애계와 꾸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면소개	
■ 종합 2~3면 2017년 제주시민 복지아카데미 운영	■ 오피니언 6면 시론·칼럼·기고
■ 사회복지소식 4~5면 '맞춤형 자원봉사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 기획 7면 시설탐방(9) - 한아름전문요양원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도내 사회복지 인권향상을 위해 법률 홈닥터가 달려가겠습니다

대상은? 사회복지서비스이용자·사회복지종사자·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1. 인권상담 2. 소송 절차 안내 3. 법률구조기관 등 연계 4. 법문화 출장 교육 등

신청 방법은?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예약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상담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법률홈닥터에서 신청
▶ 전화상담 : 제주지역 법률홈닥터 064)702-3782

제주도의회 의정소식

“복지대상자 위한 심리상담사 연계 필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과 간담회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지난달 13일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도 43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간담회는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들이 참석하여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책관련 개선사항 등 현장의 소리를 듣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장과 최근 장년층이 고독사 후 장기간 방치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사각지대 발굴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수

렴하고자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위원장들은 “복지대상자를 위한 심리상담사 연계가 필요하다.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필요하다. 협의체 위원들 일체감 조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복지관련 직원들이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용범 위원장은 “위원장들이 다양한 의견을 소중하게 청취하였으니 의회 차원에서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은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열려

오는 9~10일, 지역사회보장계획 현황과 과제 탐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회장 남진열)와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7년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가 '지역사회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오는 9일과 10일, 양일간 호텔난타제주에서 개

최된다.

첫째 날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의 쟁점과 과제', '지역사회복지와 도시재생의 융합 모색'이라는 주제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도시재생에 대한 쟁점과 과제를 모색한다.

둘째 날에는 '제4기 지역

사회보장계획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 실천중심의 접근', '일본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를 통해 내년에 진행되어야 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한 방법을 미리 살펴봄과 동시에 일본의 지역사회보장계획 현황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룰 예정이다.

도, 겨울철 에너지 드림 바우처 사업 추진

제주도는 겨울철 한파 취약 대상자인 독거노인에게 난방비를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17일 밝혔다.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홀

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도내 65세이상 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 대상자 중 기존 에너지 지원을 받고 있는 중복지원자를 제외한 2,900여 명을 선정하여 11월부터 실시한다.

대상자는 에너지 드림 바우처카드 발급을 통해

1인당 85,000원 한도내에서 지원받게 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겨울철 난방에 필수적인 연탄 및 난방용 유류·가스업종 등에서 바우처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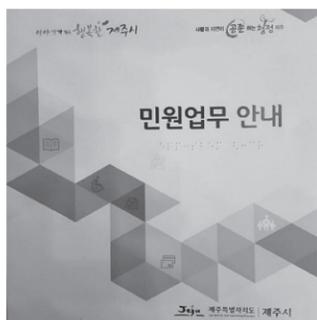
에너지 드림 바우처카드 발급은 농협을 통해서 신청과 발급이 이루어진다.

제주시, 민원 업무 안내 점자책 발간

제주시는 시각장애인 및 관계 공무원 등의 민원편의를 위해 '점자 민원업무 안내책자'를 발간했다.

주민등록, 인감, 지방세와 사회보장급여 및 사회

서비스 이용권 신청 등 사회복지 관련 민원 사무를 중심으로 신청대상자, 신청방법, 관련 법규 등 민원 사무처리에 관련된 사항을 점자와 함께 수록했다.



2017년 제주시민 복지아카데미 운영

제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고경실·고관용)에서는 지난달 25일, 한라아트홀 소극장에서 지역의 복지문제에 대한 관심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제주시민 복지아카데미를 개최했다<사진>.

대상은 복지에 관심 있는 제주시민과 제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종사자와 공무원 등 200여 명이다. 지역사회 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꿈꾸는 나를 응원하라'라는 주제로 라임자산연구소 전혜

림 대표의 특강으로 운영되며, 지역과 함께하는 복지공동체에 관심을 통한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했다.

또한 10개 실무분과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사람 중심의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지역사회에서의 역할과 활동에 관한 토론과 주제 발표를 하게 된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지역의 복지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특성과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맞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아카데미 등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758 @ 137 푸드마켓 FOOD MARKET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나눔”

10월 기탁 현황

- ▲금강축산유통=축산물110kg ▲유진상사=오뚜기 식품3,369개 ▲김지원=김치20kg ▲농업회사법인 서문식품=두부241모 ▲던킨도너츠 제주외도점=도너츠26개 ▲동원F&B제주지점=동원식품3,132개 ▲디케이서비스 감귤 5kg ▲모양=제과류62봉 ▲미인빵=빵54봉 ▲빠라빠빵=빵17봉▲자연드림 이도점=빵93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귤주스200개 ▲갯어클락=빵26봉 ▲파리바게트 제주대유대점=빵43봉

• 기탁문의 : 사랑나눔푸드마켓 • 문의전화 : 064-758-1377

사회복지협의회 2017년 9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액
재가결연후원	820,000	270,000
난치병환아후원	70,000	0
자원봉사후원	375,000	375,000
복지사업후원	910,000	8,385,050
푸드마켓후원	8,220,000	7,504,540

* 후원자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도, 복지시설 퇴소 아동 자립지원시설 신축

국비·도비 등 총 49억 투입... 2019년 2월 개소 예정

제주도는 시설보호 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의 주거문제 등을 돕기 위한 자립지원시설을 신축한다고 지난달 12일 밝혔다.

자립지원시설은 제주시 월랑로 95(도두동)에 국비 16억원, 도비 19.5억원, 운영법인 자부담 13.5억원 등 총 49억원을 투자해 내년 1월 착공, 2019년 2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된다.

시설규모는 대지 2872㎡에 건축 연면적 2221.42㎡로 남자 생활관 18실과 여자 생활관 16실 규모의 2개동으로 최대 70명까지 생활 가능한 시설이다.

시설 운영은 사회복지법인 삼인원에서 맡기로 했다.

자립지원시설 입소 대상자는 아동복지 시설퇴소 아동

과 가정위탁보호가 끝난 요보호 아동 중 입소를 희망하는 아동으로 입소자는 만18세부터 24세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제주지역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보호아동은 500여명이며, 이들 중 매년 아동복지시설 퇴소는 15명, 가정위탁보호 종결 아동은 40여명 내외다.

이들은 자립지원정착금과 아동발달지원계좌를 통해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하

고 있지만 대부분은 주거비로 사용되고 있어 취업을 하더라도 실제 자립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을 위한 자립생활관이 신축이 완료되면 이들에게 안정된 주거공간과 금융교육, 직업체험 등 맞춤형 자립지원컨설팅을 통해 사회진출에 따른 현장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 아동 현황

구분	계	2014	2015	2016	2017.6
계	212	53	57	56	46
시설퇴소	63	21	15	14	13
가정위탁 보호종결	149	32	42	42	33

제21회 노인의 날 기념식 행사 개최

노인의 날 맞아 '어려운 노인'으로 강조

대한노인회(회장 이종근)는 지난달 20일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에 있는 더플라자호텔에서 '제21회 노인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총 400여명이

참석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기초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근 회장은 인사말에서 "대한노인회는 '어려운 노인'으로, 노인회는 노인'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젊은 세대를 선도하며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SSN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소식

2017년 하반기 저소득가정 주거환경 개선사업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연합회(회장 원석철)는 지난달 22일 저소득 가정 3가구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사업 봉사활동을 실시



했다<사진> 자원봉사연합회 봉사자 3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주거환경 봉사활동에는 환경면사무소와 고산초등학교의 추천을

받은 고산리 2가구(한부모가구, 장애인·조손가구)와 제주 시각장애인복지관 추천을 받은 삼도동 1가구(장애인·독거노인가구)에 도배, 욕실조성, 단열공사 등 주거환경개선을 진행했다.

원석철 회장은 "회원들의 작은 힘을 모아 보내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활동 소감을 전했다.

제주도여성단체협의회 생필품 기탁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회장 고복신)는 지난 9월22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랑나눔 푸드마켓'에 60만원 상당의 식품 및 생필품을 기탁했다.

(주)시와월드, 이웃사랑물품 기부



(주)시와월드(대표 우영진)는 지난 9월27일, 도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감귤파이 1,000세트를 제주광역푸드뱅크에 기부했다. 기부 받은 물품은 도내 아동시설과 장애인 시설 등에 전달됐다.

김만덕 나눔 큰잔치, '사랑의 쌀자전거' 기탁



지난달 22일 열린 '김만덕 나눔큰잔치'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회장 양은정)가 사랑의 쌀 2,000kg을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제주광역푸드뱅크로 지정 기탁했다.

또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회장 김승오)는 사랑의 자전거 86대를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로 기탁해 김만덕의 나눔정신을 실천했다.

렛츠런파크제주, 한가위 정 나누기 후원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제주(본부장 정형석)가 지난 9월28일 '재래시장활성화 캠페인, 한가위 정(情) 나누기'를 후원하며 민족 대 명절 추석을 맞아 따뜻한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

올해 행사에는 렛츠런파크제주 임직원과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제주도상인연합회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도내 저소득층 100가구에 총 1,000만원의 전통시장상품권 전달식을 가졌다.

“맞춤형 자원봉사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2017년 한국자원봉사학회 추계학술세미나

‘생애주기에 따른 자원봉사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2017년 (사)한국자원봉사학회 추계학술세미나’가 지난달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개최됐다<사진>.

이번 학술 세미나는 (사)한국자원봉사학회·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사)한국자원봉사포럼·제주도자원봉사협의회·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등 공동 개최하고, 행정안전부·제주대학교·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후원했다.

첫째 날, 제주대 평생교육원에서 ‘생애주기에 따른 자원봉사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결혼이주여성

의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경험 ▲노인 자원봉사실태 및 활성화 방안 ▲청소년 자원봉사실태 및 개선방안 ▲제주지역 자원봉사 현황 및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흥태옥(온누리 봉사회) 봉사자는 시·도별 자원봉사인구 활동 현황자료 발표에 이

어 부처별로 다른 관리 시스템으로 인한 혼란과 자원봉사단체를 위한 체계적·전문적인 관리 지원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관리 기관의 정보 공유와 협업, 자원봉사자 역량 양성, 봉사활동 인센티브 공통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15회 은빛어르신 한마당잔치’ 성황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지역 어르신 900여 명 참석



제주서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안원식)은 지난달 19일 한림체육관에서 ‘제15회 은빛어르신 한마당 잔치’를 열었다<사진>.

한림읍·애월읍·한경면 소재 어르신 약 9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잔치에서는 어르신 마을별 솜씨자랑 경연 대회, 어르신 프로그램 발표

회(풍물, 탐라마술사, 노래)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경로당별로 열린 장기자랑에서는 애월읍 남읍리 경로당(노래-김익수의 19명)이 금상, 애월읍 봉성리 경로당(건강체조-정두리의 11명)이 은상, 한경면 저지리 경로당(댄스-조창길외 1명)이 동상을 각각 수상했다.

깨비랑 ‘창립 10주년’ 기념 공연

제주도장애인복지관(관장 윤보철) 장애인인형극 동아리 깨비랑은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오는 8일(수), 인형극 ‘호랑이 형님’을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2회 공연한다.

인형극 ‘호랑이 형님’은 전래동화를 각색한 작품으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나무꾼이 산속 호랑이를 만나 잡혀먹으려는 순간 기지를 발휘해 호랑이를 잃어버린 형님이라고 말하며 위기를 모면하고, 나무꾼의 말을 믿은 호랑이가 나무꾼과 그

의 어머니를 자신의 가족으로 생각하며 어머니에게 효심을 다하는 내용이다.

이번 공연은 어린이 선착순 200명을 대상으로 공연 시간은 오전 10시와 11시 두차례 진행된다.

깨비랑 관계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깨비랑 공연은 장애인에게는 사회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와 관람 어린이에게는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7 제주국제장애인인권영화제 개막

3~5일 국립제주박물관 2층 강당...작품관람 무료

제주국제장애인인권영화제가 오는 3~5일,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열린다.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이번 영화제는 ‘우리 자신의 목소리로’를 주제로 장애와 인권을 소재로 한 국내·외 작품 18편을 상영한다.

개막작은 장애인 친구 세명의 위험천만하지만 유쾌한 여행이야기를 그린 ‘아스타라 비스타(2015)’가 선정됐다.

폐막작에는 고등학교 수영선수와 몸이 불편한 그의 형사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과 화



Saw’가 초정작으로 상영된다. 이 영화는 연예인 시각장애인 이동우씨와 그에게 망막을 기증하겠다는 지체장애인의 인연을 그린 작품으로 가슴 뭉클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한국 뿐 아니라 독일, 핀란드, 네덜란드 등의 작품들도 상영되는데다, 이 사회에서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될 전망이다.

작품 관람은 무료며, 참석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증정된다.

해를 다룬 ‘잠물(2017)’이 였다.

이와함께 제주출신 영화감독 고희영씨의 ‘시소(See-

서귀포청소년문화의집, ‘옥상달빛 음악회’ 개최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관장 강하자)은 지난달 22일,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옥상에서 ‘옥상달빛 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옥상달빛 음악회는 청소년운영위원회 ‘맑은세상’이 주최하고, 청소년동아리연합회 방과후 아카데미가 참여한 가운데 가을을 맞아 문화의집 숲은 공간을 활용한 서정적



음악회를 열어 소속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감정을 충전하고 단합하는 계기로 삼고자 마련됐다.

음악회는 바비큐파티와 함께 청소년들의 노래, 댄스, 기타, 난타 등 장기를 뽐내며 문화 공연의 장을 펼쳤다.

발달장애아동 가족캠핑 ‘통통한 가족’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필수)은 지난달 14~15일 1박2일 동안 교래리 소재의 글램핑장에서 발달장애아동 가족캠핑 ‘통통(통통)한 가족’프로그램을 실시했다<사진>.

발달장애아동 가족 12가구 총 53명이 참가한 이번 가족캠핑에서는 가족 상호간의 정서적 유대감 강화와 친밀감 조성 훈련을 목적으로 각종 체험 활동과 캠핑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보도자료 접수 안내

제주사회복지신문은 도내 사회복지소식 보도자료를 매달 22일까지 제주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생활게시판 “알림” - 보도자료’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소/식/마/당

전문자원봉사단 워크숍 개최



제주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 유근)는 지난 9월28일 제주시 화 목원에서 전문자원 봉사단 대표 및 임원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7 전문자원봉사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전문자원봉 사단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전문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와 전문봉사 단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상호 지 원 협력방안 등이 논의됐다.

사랑의 행복나눔 현장체험



새마을교통봉사대 제주지역대(대 장 김인규)는 지난 9월28일 혜정 원 아가의집(시설장 박두현) 장애인 30명과 교통봉사대원 등 100여 명 이 참석한 가운데 '2017 사랑의 행 복나눔 현장체험'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교통봉사대원 택시 차량을 이용해 아가의집 장애인들 의 워터서커스 관람, 실내테마파크 체험, 낙타트레킹, 마상쇼 관람 등 의 체험활동을 도왔다.

민간복지자원 공유 업무협약



은성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봉 한)은 지난달 19일 화북동지역사회 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태리, 김 경빈)와 민간복지자원 공유를 위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화북동 저소득 가정 발굴, 복지자원 지원 연계, 사 례관리와 복지관 서비스 지원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질 높은 사 회복지서비스 전달에 서로 힘을 모 으기로 했다.

명절 음식 만들기



제주애덕의집(원장 현성훈)은 지 난달 4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한가 위를 맞이해 '명절 음식 만들기' 프 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각자의 개성을 살린 꽃과 동물, 하트, 나 비 등 다양한 모양의 송편을 만들 고 버섯, 호박, 소시지를 이용한 전 부치기 등 명절 음식을 직접 만 들어 먹으며 서로 덕담을 나누는 등 즐거운 추석을 보냈다.

족구 프로그램 운영



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 성자)는 노숙인과 노숙관리인들을 위한 '족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매주 3회 제주시 탐동 족구장에 서 진행되는 족구 프로그램을 통 해 노숙인들의 체력 향상과 음주 환경에서 벗어나도록 돕는다. 또 한 매년 1회 제주시희망원 자원봉 사자들과 4개 팀을 구성해 화합한 마당 족구대회도 개최한다.

'성·인권 감수성UP' 교육



희망나래활동센터(원장 박인향)는 지난달 13일, 센터 이용 장애인 들을 대상으로 제주여성인권상담 소·시설협의회에서 주최하는 '폭 력예방! 성·인권 감수성UP' 교육 을 실시했다.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성폭 력 대처 방법을 습득하고, 성 에티 켓 등 일상 생활 속 성문화에 대 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일상탈출, 함께 떠나는 희망여행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약천사 자광 원(원장 정수스님)에서는 지난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3일간 '일 상탈출, 함께 떠나는 희망여행'문 화탐방을 다녀왔다.

지난 5월에 열린 '제4회 행복 나 눔 바자회' 수익금으로 이뤄진 이 번 문화탐방 여행은 자광원 이용 인을 비롯한 종사자, 보호자 80여 명이 참가해 서울과 경기지역의 문 화유적지들을 탐방하고 왔다.

추석맞이 성금 전달



제주지방조달청(청장 김현태) 임 직원들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지 난 9월26일 혜정원장애인직업재활 시설(원장 이민숙)을 방문, 성금을 전달과 함께 시설환경 정비 등 일 일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김 청장은 "작지만 직원들의 따 뜻한 정성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고 나눔 문화를 확산해 나가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함께해요'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송죽원(원장 김금자)은 지난달 20일 지역사회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일환으로 '우 리는 함께해요' 행사를 한림체육 관에서 개최했다.

장애인들과 지역사회구성원들 이 함께 어울려 사회통합을 이루 기 위한 이번 행사에는 하귀어린이 집(원장 강보승) 원생들과 자원봉사 자들이 참여해 레크레이션과 게임 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정혜재활원 가족여행



정혜재활원(원장 이흥기)은 지난 달 14일부터 17일까지 거주장애인 들과 러시아 가족여행을 다녀왔다.

지난 2014년 일본, 2016년 중국 에 이어 세 번째 해외 여행인 이번 가족여행은 거주장애인들에게 새 로운 세상을 경험케 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흥기 원장은 "앞으로도 거주장 애인들의 다양한 경험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찾아가는 인형극 '깨비의 하루'



제주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 선희)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효(孝)의식 함양을 목 적으로 하는 찾아가는 인형극 '깨비 의 하루'를 운영 중에 있다.

인형극은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 집 원아들을 대상으로 아동들이 쉽고 재미있게 효에 대해 알 수 있 도록, 귀여운 캐릭터 인형들과 신 나는 음악으로 구성해 높은 호응 을 얻고 있다.

출산장려인식 개선사업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윤두 호)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는 지난달 15일 개최된 제3회 제주발 담축제에 참가해 출산장려인식 개 선사업을 전개했다.

이번 개선사업은 가족계획 변천 사와 표어 맞추기, 손수건과 에코 백 그림그리기 체험 등을 진행했 으며, 행사장을 찾은 한 가족은 "저 출산의 심각성을 알게 된 기회였 다"고 참가 소감을 말했다.

시론

No where인가요?, Now here인가요?

2017년 11월을 맞는다. 단풍들은 산야를 울긋불긋 수놓고 있다. 어느덧 갈바람까지 차갑게 불어온다. 거리에 한 잎 두 잎 떨어지던 낙엽들도 우수수 쌓여가기 시작한다. 이럴수록 우리네 마음은 심란해진다. 옷깃을 더욱 여미며 지나온 상념들에 빠지곤 한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과거형이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진행형이다. 미래형의 나날들이다. 새로운 11월은 불안과 걱정보다는 희망과 기대로 다가올 터이다. 긍정과 부정은 우리 마음 먹기에 달려있기에서다.

11월은 새로운 선물

윤보영 시인의 '11월의 선물' 전문을 인용해 본다.

〈사람과 사람사이에/ 정이 흐르는 11월입니다./ 가을이/ 봄과 여름을 데리고/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다고/ 겨울을 데리고/ 12월이 가까이 와 있다고./ 올해도 또/ 가지 끝에 남아있다/ 떨어진 나뭇잎처럼/ 의미 없이 지나가게 될 11월!/ 홀로선 나무줄기 속에는/

이미 봄이 오고 있고/ 씨앗을 품고 있는 대지도/ 새싹 틱을 꿈에 젖어 있듯./ 그대와 나/ 그리고 우리 안에도/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제 차 한 잔에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으로 채워/ 11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에게 선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선물 받겠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시어들이다. '정이 흐르는 11월'이라는 표현은 가슴에 포근히 와 닿는다. 모든 게 긍정적 사고에서 비롯된 듯하다.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을 얘기할 때면, 단골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다.

'Nowhere'라는 영어가 띄어쓰기에 따라 부정적인 표현인 'No where(어느 곳에도 없는)'와 긍정적인 표현인 'Now here(바로 지금 여기에)'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같은 철자임에도 띄어쓰기에 따라 그 뜻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의 유래와 관련, 몹시 가난한 집안에 형제가 살았다고 한다. 아버지는 임종

을 앞두고 아들 형제들에게 'dreamisnowhere.'라는 유언을 남겼다. 형은 이를 'Dream is no where.(꿈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읽으며 자라났다. 그 결과, 걸인 신세를 면하지 못하였다.

Dream is now here

그러나 동생은 'Dream is now here.(꿈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로 읽으면서 성장하여 유명한 학자가 되었다. 같은 환경에서 자라난 형제였지만, 선택에 따라 너무나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얘기가.

새로운 11월은 우리 스스로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김범훈
(사)Geo-Jeju연구소장

기고

사회복지법인 지도 점검을 마치면서



이남희
제주도 복지청소년과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도 내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70개 시설법인이 관리·운영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의 관리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은 3년에 한 번, 사회복지시설은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비록 사회복지법인은 개인

의 재산을 출연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정부의 공공재원을 지원받아 노인·장애인·아동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므로 법인은 운영상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명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은 점검을 통해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미흡 시 시정·처분을 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는 법인 업무와 관련 법규에 의한 그 책무성에 맞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법규상 책무성으로는 재산의 취득사항 보고 및 변경재산 법인의 정관상 기본재산 편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이사회 회의를 소집 시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해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사회 회의록은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공익성 및 투명성에 맞춰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에 3개월 동안 공개한다.

임원은 이사 7명, 감사 2명 이상을 뒤야 하며 그 임기는 이사 3년, 감사 2년이다. 임원의 임면은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임면해 지체없이 도시사에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법규를 준수하면서 사회복지법인 대표자는 사회복지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수혜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역할을 사회복지법인이 다했으면 한다.

칼럼

주거약자의 주거복지에 대해 생각해 본다.

“도배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습기로 물이 흥건한 바다, 곰팡이벽, 공동화장실에 보일러 없는 년세 150만원, 이마저도 구하기 힘들어 감사할 뿐..그분의 이번 겨울은 더 추울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에 지인이 올린 봉사 소감이다.

최저빈민선의 주거약자가 제주에 적지 않다. 주거급여 대상 가구가 13,000여 가구에 이르고 월 평균 11만원대의 임대료를 제주도는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개발 광풍에 천정부지로 오른 부동산 가격은 주거약자의 숨통을 죄고 있는 게 현실. 정부의 저소득층 주거임대 지원기금은 몇 년 세 크게 오른 임대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불용처리 될 정도이다. 장애인권과 사회통합의 가치에서 '탈시설'을 말하지만 주거가 차단되는 현실에서 탈시설은 요원하다. 페이스북의 사례가 그 경우다.

좀 더 확대해서 보자.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보면 제주의 주택 자가 비율은 2015년 현재 전국평균 56.8%에 못 미치는 54.2%다. 문제는 주택 자가 비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거약자 위한 체계적 계획 · 실천 필요

주택보급 필요 토지가 외지인을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고 토지가격상승분이 주택가격에 전이되어 도민 주거비용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땅값을 올린 자는 제주도민이 아닌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제주개발로 인한 부동산 세수는 2016년의 경우 1조가 넘는다. 2007년 약 1천 억대의 세수였는데 10년 사이에 10배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사회복지재정예산은 어느 정도 증가했을까. 2007년 전체예산 대비 16%에서 2016년이 19%이니 불과 3% 증가했다. 복지재정 전국평균은 25%이다. 증가율이나 비중에 대해 논하기 부끄럽다.

세수가 증가한 만큼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 보건복지여성국 2017년 업무계획에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촘촘하고 특별한 계획은 찾기 힘들다. 이를테면 서울시의 탈시설 장애인거주를 위한 자립지원금 시책이나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지원 같은 정책 발굴 말이다. 주거복지센터의 경우도 서울시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10개소를 민간에 위탁하는 반면, 제주도는 담당부서가 주거복지센터를 겸하고 있다.

제주도가 주거복지 기능을 성실히 수행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주거복지

는 단순히 공공주택 총량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거다. 생애주기별·장애유무·지역별 주택유형과 지원에 대해 보다 세분화된 체계적 계획을 기대한다.



고현수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상임대표

시설탐방 (91)한아름전문요양원

소중한 기억을 한아름 만드는 곳

도심 속 접근 용이, 자유로운 가족 방문 보장

노인의료복지시설 한아름전문요양원(원장 김영훈, 이하 요양원)은 제주의 화려했던 흔적들이 곳곳에 묻어있는 원도심(제주시 중앙로 12길 4)에 위치해 있다.

‘생동감이 넘치는 도심속에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그 가족들에게 행복을 ‘한아름’ 담아드리고 편안하고 건강한 모습을 되찾게 해 드린다’라는 설립목적 갖고 지난 2010년 9월, 전문요양원으로 는 도내 최초로 주식회사 형태를 갖추고 설립됐다.

요양원은 지하2층, 지상7층으로 정원 96명에 현재 90명의 어르신이 입소해 있었다.

지난 2016년 8월 부임한 김영훈 원장은 투자자인 주주로 있다가 직접 경영에 참가하게 된 특별한 이력의 소유자였다. 김 원장에게 요양원을 운영하게 된 계기와 운영 비전에 대해 물었다.

김 원장은 “어릴 적 외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다. 그 경험은 나이가 들에도 잊혀지지 않는 소중한 추억이었다.”며 “세월이 흐름에 본인을 항상 사랑하던 외할

머니가 노쇠하게 되고, 손자인 나조차 못 알아보는 충격적 순간을 맞이하게 되자 내가 받은 사랑을 돌려줘야 할때라고 생각하게 됐다”며 “그 정도와 고민이 깊어짐에 따라 외할머니와 같은 상황의 분들을 모시는 요양원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다.

어르신에게 소중한하고 아름다운 추억 만들기 프로그램 심혈 편안한 방문 보장... 가슴 아픈 사연 품은 보호자 사례도 생겨나

비전에 대해서는 “요양원 운영에 있어 거창한 뜻을 새롭게 세우진 않았다”며 “그저 어르신을 잘 모시는 것이 최대 비전이자 목표”라고 답했다.

김 원장은 “대부분의 요양원 어르신들이 그저 누워있거나 TV만 보는 것이 현실”이라며 “요양원 프로그램은 1:1매칭을 통한 시장보기, 동네 걷기, 영화관 가기, 지역 축제 참여 등 어르신들이 답답한 요양원 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작지만 소소하게라도 아름다운 추

억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장점으로는 “요양원이 도심에 위치해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한적한 시골이 좋을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도심은 어르신들에게 익숙한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더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가족들이 큰 맘을 먹지 않아도 쉽게 찾아올 수 있으며, 직원들도 출·퇴근이 용이해 어르신들께 더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요양원에 대한 긍정적 평가나 특징에는 “취침시간을 제외한 가족들의 방문에 어떠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답했다. 출입문이 항상 오픈되어 있으며 사무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자신의 가족을 만날 수 있다.

가족을 모시는 또 하나의 세컨드 하우스 개념인 것이다.

내 집처럼 편하게 왔다가 편하게 갈 수 있는 특징에 가슴 찡한 사연들도 생긴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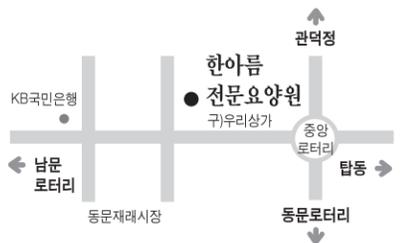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신 후, 매일 아침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일하러 가던 아드님이 있었는데, 지난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가끔씩 요양원을 방문해 어머니를 추억하고 간다.

또한, 남편을 요양원에 맡기신 할머니는 매일 아침 남편 곁을 지키다 저녁이면 돌아가는 데 인터뷰하는 현재에도 요양원에서 남편분 곁을 지키고 있었다.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에 대해 김 원장은 “한아름의 경쟁자는 타 요양원이 아니라 호텔 등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다”며 “케어 관련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원이 되겠다”고 답했다.



▲ 한아름전문요양원은 교통이 편리한 원도심에 위치해 있으며, 입소 어르신과 그 가족들의 관계 유지에 힘쓰고 있다.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홍닥터 46

소년 가정의 상속관련 문제



황인철 변호사
제주지역 법률홍닥터

만 남긴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그 자녀 A군(17세)과 B군(14세)만이 세상에 남겨지게 되었다. 아버지가 남긴 빚뿐만 아니라 그동안 살던 집에 더 이상 월세를 내지 못하여 쫓겨나게 되는 상황에서 미성년 형제들은 주민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다.

◆ 미성년 후견인 선임

두 형제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법적인 일을 처리하

기 위해 이들을 대신할 법정 대리인이 필요하다. 어머니는 가출을 하여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친권을 없애고 다른 성인(주로 친척)이 새로운 법정대리인(‘미성년 후견인’이라고 함)이 되어야 한다.

이들 형제의 경우에는 주거, 생계비 지원과 상속포기 절차를 도움 이모가 임시후견인으로 선임되었고 이모의 도움으로 LH가 제공하는 소년가장 임대주택 지원 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형제들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어 당장의 생계를 해결할 수 있었다.

◆ 상속재산의 포기

K씨가 남긴 빚은 이들 형제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액수였기 때문에 상속포기 절차를 통해 채무에서 해방될 수 있다.

상속재산포기는 법원에 신청하는 일종의 소송으로 K씨 사망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큰 어려움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 (다만 상속포기의 경우 다

음 순위인 친척들에게 빚이 넘어가게 되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위 과정은 많이 복잡한 법적 절차는 아니지만 이 소년들이 스스로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시기를 놓쳐서는 안될 문제이기 때문에 신속한 도움이 필요하다.

아직 어린 나이지만 두 형제는 채무 독촉에서 벗어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거지를 마련함으로써 다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법무부 발간 ‘2017 법률홍닥터 우수사례집’에 실린 실제 사례입니다

중국집을 운영하던 K씨는 부인이 가출을 하여 연락이 두절되자 술에만 의존하는 생활을 하였고 큰 빚

제 8회 사회복지자원봉사 명예의 전당 주인공을 찾습니다



사회복지자원봉사 '명예의 전당'이란?

제주지역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한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과 명예를 드높여 우리사회에서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제1회 명예의 전당
김 영 순



제2회 명예의 전당
원 석 철



제3회 명예의 전당
변 명 효



제5회 명예의 전당
한 경 찬



제6회 명예의 전당
정 정 숙



제7회 명예의 전당
고 명 대

※ 제4회 명예의 전당 대상자 없음

1. 추천대상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제주지역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한 자(현재 활동중인 개인, 타계한 자원봉사자)

▶ 추천기준

봉사실적의 헌신성, 수공기간, 전문성, 창의성, 확산성 등 고려하여 아래 사항 중 한가지 항목이라도 해당될 경우 추천가능

- 자원봉사 활동기간 20년 이상 활동중인 자
- 인증관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 만 7년 이상 활동중인 자
- 인증관리 DB시스템(VMS)상 봉사시간 1,000시간 이상 활동한 자
- 인증센터 등록 자원봉사자 중 상기사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모범적인 봉사활동 도중 심각한 상해를 입은자

2. 추천자격

- ▶ 제주도내 자원봉사인증관리센터 대표

3. 제출서류

- ▶ 추천서, 공적요약서, 현지확인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
- ※ 추후 관련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4. 신청방법

- ▶ 신청기간: 2017. 11. 1(수) ~ 2017. 11. 24(금) 17:00
- ▶ 신청방법: 이메일(jejubokji@hanmail.net)제출
- ▶ 문의전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064)726-5786
070-4726-8823

5. 명예의 전당 등재자 혜택

- ▶ 등재기념 순금배지 시상
- ▶ 등재기념패 증정
- ▶ 공적 및 활동사항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관 '명예의 전당' 및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 코너를 통해 공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